

우리나라 農藥産業 발달사(1)

李 碩 柱

상무이사

농약공업협회

이 땅에 농약산업이 발 디딘 지 반세기가 흘렀고 우리 한국인에 의해 본격 운영된지도 40여년이 가까와 온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우리 농약산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며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벼농사가 우리나라에 傳來된 것은 新石期 後期경으로 보는 說이 有力하며 이당시 보잘것 없는 農耕技術에도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있었다.

15世紀 農事直說을 비롯하여 四時纂要抄, 撮要新書, 衿陽雜錄, 16世紀의 政事撮要 17世紀의 山林經濟 등 農書 등을 통해서 본 우리 先人들의 병충해방제 흐름을 요약해 보면 우선 病보다는 눈에 보이는 害虫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오고 病害에 대한 기록은 17世紀末경에 비로소 인정된 기록이 있다.

또 곤충에 대해서는 초기의 種子處理를 통한 예방이나 誘殺法 등 소극적인 방제형태에서 17世紀初 若蓼根, 17世紀末의 硫黃 등 殺虫劑를 使用함으로써 적극적인 殺虫驅劑로 발전되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물의 病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제법의 개발이 없이 오직 健苗育成의 기초적인 方法으로 病을 예방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李祖世宗 때의 農事技術을 수록한 「農事直說」에는 파종에 앞서 種子의 「침지처리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仁祖 때의 「사의경험방」에는 털에 생기는 기생충을 담배의 검은 진을 물에 섞어 바르면 한번에 모두 죽인다고 하였다.

洪萬善(1643-1715)이 저술한 「山林經濟」에는 果樹의 벌레구멍을 상목, 산초로 막는 法과 유황분말을 벌레구멍에 넣거나 대나무 장대 끝에 硫黃을 태워 燻蒸에 의한 防虫法이 언급되어 있다.

1. 自給을 위한 노력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농업은 自給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과학적인 영농

방법이 시작된 것은 1905년 이후 「권업모범장」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부터였다.

농약이 어느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농사가 시작된 오래 전부터 재배되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충이나 잡초를 방제하는데 어떠한 수단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추측만 해 볼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짧은 역사를 가진 국내농약산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외국의 기술도입으로 시작해서 이의 소화, 모방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다.

日本人에 의해 1930년 이 땅에 처음으로 조선삼공(株)이 설립되었고 그후 10년 뒤인 1941년에는 조선농약(株)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農藥産業은 胎動期를 맞이했으며 두 회사는 후에 한국삼공(주)과 (주)한농으로 商号變更과 함께 우리나라 最初의 農藥會社가 되었다.

이 당시만 해도 두 회사는 1945년까지 園藝用 농약인 동수화제, 석회유황합제, 비산연, 비산석회 등 無機化合物과 제충국제, 유산니코친, 연초분말 등 植物性殺虫劑와 유기수은제1호, 석유유제 등을 市販하는 정도였다.

1910年 경부터 果樹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 無機殺菌劑인 석회보르도액은 萬能藥劑로서 殺菌劑中の 「金메달 리스트」였다.

또 이 時期에 특기할 만한 것은 페닐초산수은(PMA)을 主成分으로 한 도말용유기수은제, 침지용유기수은제 및 살분용유기수은제가 主로 도열병 방제용으로 販賣되었는데 이 藥劑의 판매량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전체 殺菌劑의 主宗을 이루었던 것은 값이 저렴하고 효과가 확실하였기 때문이다.

이 당시 藥劑殺布의 대상작물로는 벼, 果樹, 채소, 면화 등이 主宗을 이루었다.

특히 DDT가 1949年에, BHC가 1952年에 수입되었는데 이 藥劑는 작물의 害虫防除에도 상당한 寄與를 했지만 그외에 衛生藥品으로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 農村實情은 “보릿고개”에서 허덕였으며 한 두 벌의 옷으로 겨울을 지내야 하는 實情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이”가 들끓어 DDT를 옷 속에 넣거나 머리에 뿌려야만 했다.

십지어는 온몸에 바르기 까지

하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理解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각종 질병을 媒介하는 모기, 빈대 등도 이들 藥劑로 驅除함으로써 環境衛生 側面에서도 많은 공적을 남겼다.

2. 농약회사의 胎動

1945年 光復以後 부터 1956年까지는 조선삼공(주), 한국농약(주) 외에도 前進洋行(주), 서울農藥工業社, 韓國니코친工業(주) 등의 농약회사가 設立되어 年間成分基準으로 700~800餘M/T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공급하게 되었다.

이같은 농약의 증가추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증산계획에 따른 水利施設 및 耕種法改善등에 힘입어 金肥施用이 늘어났고 병해충 발생이 해마다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서 農藥이 병충해방제는 물론 衛生害虫 방제용으로 까지 사용되자 당국에서는 環境公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정부에서는 農藥의 품질관리를 기하고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1957年 8月28日 「農藥算管法」을 制定 公布 하였으며 1958年 1月에 同法 施行令 및 施

行規則이 制定됨으로써 그 동안 규제없이 유통되던 모든 農藥이 이때 부터 규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3. 規制받는 農藥産業

이 法의 제정으로 製造業, 輸出入業이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했으며 販賣業者도 서울 特別市長, 各市道知事에게 申告 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또 農藥管理法의 效率的인 뒷받침을 爲하여 1957年 10月(大統領令 1310號)에 「農藥審議會」制度를 도입하여 農藥의 公正規格設定 및 檢査方法, 農藥管理法令의 制定 및 改廢 등을 심의하는 동시 1958年 1月(農林部告示 第304號)에는 有毒性農藥取扱事項을 제정 고시함으로써 농약안전 사용에 力點을 두었으며 1959年 11月에는 새로운 農藥의 輸入 및 製造許可를 위한 「試驗委託取扱要令」이 農業試驗場에서 제정되었다.

이 요령이 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農藥의 藥害 및 藥效試驗이 실시되었으며 外國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環境에 적

응하는 좋은 農藥만이 사용됨으로써 1940年代 부터 1950年代初까지 無分別하게 사용되던 시대는 幕을 내리고 委託試驗을 거쳐 許可檢討基準에 합격한 품질 좋은 농약만이 사용되어 人畜에 대한 위해방지는 물론 環境汚染防止에도 크게 기여하는 轉機를 마련했다.

4. 春秋戰国時代 개막

그러나 農藥管理法이 공포된 1957年 부터 1962년까지 6年 동안에 美成實業(株)을 비롯하여 20個社가 더 설립되어 우리나라 農藥會社는 25個社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농약회사는 크게 증가한데 反해 국내소비량은 오히려 減少하는 奇現象이 나타나 업계의 경영은 어려웠다.

1960년에 殺虫劑 1,609M/T, 殺菌劑 193M/T, 除草劑 4M/T, 其他 1M/T 등 1,807M/T이나 사용되던 것이 1961년에는 總 1,696M/T, 1962년에는 712M/T 으로 사용량이 크게 줄어 不況의 연속이었다.

1962年度에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한발로 모를 제때에

내지 못해 모도열병의 발생이 없어 “세레산석회” 등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業界의 실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會社 相互間의 판매 경쟁은 업계를 더욱 어려운 狀況으로 몰고 갔으며 이에 처한 自救策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 호 계속>

◆農藥 및 原劑 製造會社 變遷

●製品製造會社

從 前		現 況		備 考
年度	商 號	年度	商 號	
1930	朝鮮三共(株)	1968	韓國三共(株)	商號變更
1941	朝鮮農藥(株)			韓國農藥(株)로 商號變更
(1953)	韓國農藥(株)	1981	(주)한 농	商號變更
1952	前進洋行(株)	1963	前進産業(株)	商號變更
1953	서울農藥工業社	1961	서울農藥(株)	商號變更
1956	韓國니코친工業(株)	1964	榮一化學工業(株)	商號變更
1957	美成實業(株)	1971	美成農藥工業(株)	商號變更
1957	慶北農藥公社(株)			慶北農藥工業(株)로 商號變更
(1965)	慶北農藥工業(株)	1982	(株)慶 農	商號變更
1958	東亞藥化學(株)			상호農藥(株)로 商號變更
(1969)	상호農藥(株)			1971年 廢業
1958	東洋製藥(株)			1968年 廢業
1958	大韓農藥化學工業(株)			1970年 廢業
1958	(合名)亞洲化學工業社			1968年 廢業
1958	中央農藥工業(株)			1979年 廢業, 東洋化學工業(株)에 讓渡
1958	興安實業(株)			廢業
1958	미동産業(株)			廢業
1958	(株)東華農藥工業社			1970年 廢業
1958	京畿農藥社			1970年 廢業
1958	(株)韓國農藥企業公社			1969年 廢業

1958	大田農藥(株)			韓田農藥(株)로 商號變更
(1959)	韓田農藥(株)			1976年 廢業, 東洋化學工業(株)에 讓渡
1959	(株)柳韓洋行			1969年 廢業
1959	第一農産(株)			1970年 廢業
1959	全北農藥(株)			1968年 廢業
1959	新常綠化學工業(株)			1977年 廢業, 東洋化學工業(株)讓渡
1959	大豐新藥(株)			廢業
1962	東光化學工業(株)	1971	東邦農藥(株)	商號變更
1962	天光化學工業(株)			1969年 廢業, 성신農藥(株)에 讓渡
1963	一進農藥工業(株)			1976年 廢業
1963	大林化學工業社			1966年 廢業
1964	天一化學工業(株)			1968年 廢業
1964	三進農藥(株)			1970年 廢業
1964	三星化學工業(株)			1965年 廢業
1964	한진農藥(株)			1967年 廢業, 陸一物産(株)讓渡
1965	우양化學(株)			廢業
1966	三洋化學工業社			1972年 성신農藥(株)와 合併하여 常進化學工業(株)設立
1967	陸一物産(株)			한진農藥(株)讓受,
		1968	韓美合資 策一農藥(株)	1970年 廢業
1969	성신農藥(株)			天光化學工業(株)讓受, 1972年 三洋化學工業(株)와 合作하여 常進化學工業(株)設立
1972	常進化學工業(株)			성신農藥(株)와 三洋化學工業(株)合作 設立,

			1974年 廢業, 1975年 大韓農藥(株) 前身인 常進化學工業(株)에 讓渡
		1976	大韓農藥(株)
		1976	東洋化學工業(株)
			1975年 常進化學工業(株) 讓受 1976年 韓田農藥(株) 讓受 1977年 新常綠化學工業(株) 讓受 1979年 中央農藥工業(株) 讓受

● 原劑合成專業會社

1974	韓美有機化學工業(株)			1983年 東塲化學(株)에 合併
1976	新韓化學(株)	1975	코 락(株)	1979年 廢業, 榮一化學 工業(株)에 讓渡
		1977	韓國火藥(株)	
		1977	(株)製鐵化學	
		1977	大一化學工業(株)	1985年 廢業 1980年 廢業
1978	麒麟商事(株)	1978	進興精密化學工業(株)	
		1978	(株)韓精化學	
		1979	東塲化學(株)	1983年 韓美有機化學工業 (株) 合併
		1980	瑞韓化學(株)	
1981	錦湖化學(株)	1985	錦湖石油化學(株)	商號變更<未會員>
		1982	東洋일랑코(株)	
		1983	(株)錦 洋	
		1983	松原產業(株)	
1986	(株)력키			<未會員>